침이 부족하면 입 안 불편에 각종 구강 질환 유발

건강 바로 알기
구강건조증

입 안이 말라 심하면 음식물 못 삼키고 말하기도 어려워
약물 부작용 주 원인 … 분사제·인공타액으로 증상 완화

안종모 조선대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

장수시대에 노년에 찾아오는 많은 질환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다양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 나타나는 신체의 여러 변화나 부작용 중 하나가 타액(침) 분비 저하로 인한 구강건조증이라고 할 수 있다.

타액은 구강조직이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강 내 질병의 발생을 억제시키므로 타액의 분비가 정상 이하로 감소되어 구강건조증이 발생되면 다양한 구강 내 질환이 발생될 수 있다.

◇구강건조증이란?=구강 내에서 건조감을 느끼는 주관적인 자각 증상을 말한다.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구강건조증은 빈혈, 탈수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타액선 실질의 파괴 등에 의해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한 구강건조증의 원인으로는 전신질환, 약물 부작용, 방사선 조사 등이 있다.

구강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당뇨병, 위축성 위염, 갑상선기능항진증, 철결핍성 빈혈, 간질환 및 신장질환 등 무수히 많다. 약물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구강건조증은 항콜린 작용제, 항히스타민제, 항고혈압제 등이 가장 대표적이며 진정제, 항우울제, 암페타민 등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국내의 경우 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이니, 약물 부작용이 국내 노인 구강건조증 발병의 가장 빈번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항고혈압제나 항우울제 등은 장기적인 복용이 필요하고, 임의로 중단 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으니 이들 약물에 대한 조절은 환자의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두경부 암으로 인하여 방사선 조사를 한 경우에도 몇 주 이내로 타액선 영향으로 인한 타액분비가 현저히 감소되고 연하 곤란 등이 나타나게 된다.

◇증상과 치료=지속되는 구강건조증은 미각 기능 감소, 저작 및 연하장애 등 다양한 구강질환을 일으킨다. 구강건조증 환자들은 내원 시에 '입안이 마르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구강 건조감을 호소할 수 있으나 '음식물을 삼킬 수 없다', '말을 하기 어렵다', '의치가 잘 맞지 않는다' 등의 이차적인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타액 양은 적고 거품이 많은 편이며, 타액 양의 감소로 인하여 충치 및 치주염이 잘 이환이 되고, 타액의 윤활기능 저하에 따른 구강 내 궤양이 빈발하고 틀니 아래 조직에 염증, 구강칸디다증과 같은 곰팡이 감염, 구강작열감 증후군, 구취 등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구강건조증의 치료는 필수적이며, 주로 대증적이며 예방적인 치료를 실시한다. 보조요법으로 수분 섭취, 가습기 활용, 금주 및 금연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인체의 타액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수시로 구강을 적셔서 구강 건조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타액선의 실질적 기능이 저하된 무반응자의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제제이다. 일반적으로 제로 바와 같은 분사제와 드라이문트와 같은 젤 형태의 인공타액이 사용된다. 염산 필로카르핀과 같은 타액선 분비 자극 촉진 약물이 사용될 수도 있으며, 자극성 타액 분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반응자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안종모 교수가 입 안이 자주 말라 삼키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구강건조증은 분명한 원인요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원인요소의 해결에 따라 처치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구강건조증의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하며, 타액분비를 일시적으로 촉진시키거나 인공타액을 사용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구강건조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구강 내 다양한 질환과 증상이 나타나므로 주기적인 진료와 예방적 관리가 추천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올 한해 SCI 논문 100편 돌파

연구능력 세계 정상 입증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의 연구 능력이 세계 정상 수준 임을 또다시 입증했다.

전남대 순환기내과는 올 한해에만 SCI 논문 100편 돌파라는 전무후무한 실적을 올렸다.

순환기내과는 지난 17일자로 발표한 '심인성 쇼크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다혈관 중재술 후 장기간 임상경과'라는 제목의 논문이 미국심장학회지에 게재됨으로써 2019년에 100번째 SCI 논문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10월 추계대한심장학회에서 총 92편의 논문 발표로 기록한 '17년 연속 최다 논문 발표'에 이은 또 다른 쾌거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를 펼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이 같은 실적은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와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 의료진 및 연구진의 세대를 뛰어넘는 화합과 의료 연구에 대한 열정이 있어 가능했다.

올 2019년 1년 내에 SCI급 논문 100편을 돌파한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와 연구진.

지금까지 국내외 학회지에 총 1500여편의 논문을 게재한 순환기내과의 저력은 바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치료와 최다 심장혈관중재술에서 비롯된다.

전남대병원의 심장중재술은 지난 1987년부터 시작해 매년 최다 기록행진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1월부터 11월까지 총 4320건을 돌파해 기록 경신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또 지난 2003년부터는 매년 광주국제심장중재술을 개최하면서 국내외 의료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전남대병원 스텐트'라는 대학병원 이름의 스텐트를 개발해 미국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의 왕성한 연구활동은 미래의료를 선도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 R&D 특구에 추진 중인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에도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며,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 구체화 연구'가 포함돼 지역 의료발전에도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기독병원, 지역주민 초청 크리스마스 칸타타 연주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최용수)은 지난 19일 오웬기념각에서 지역주민을 초청해 성탄을 축하하는 칸타타 '그 별을 보라'를 연주했다. 〈사진〉

지역주민 초청 성탄칸타타 연주는 작년에 이어 2회째로 올해는 광주기독병원 찬양대와 함께 광주제일교회의 엘로힘중창단·드림중창단, 세 양림교회 권사찬양단, 주찬양교회 유오디아 소년소녀합창단, 기독간호대학교 흔성듀엣, 광주기독병원 헤세드 중창단이 협연했다.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광주기독병원은 115년 전 간절한 기도와 찬양으로 첫 예배를 드렸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역주민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하고자 칸타타를 준비했다"며 "오늘 준비한 성탄 칸타타가 광주시민과 이웃들께 사랑과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